

# 내년 지방선거 전·현직 공무원 대거 출마...성적표 주목

## 행정 전문성·인적 네트워크 등 경쟁력 최대 강점 일부 선거구 4-5명 자천타천 거론...과열 조짐도

내년 6·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광주·전남 전·현직 공무원 출신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선거구는 4-5명의 전·현직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출마 예정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등 조기 과열 현상마저 빚어

지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전·현직 공직자는 윤병태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주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도연 전 나주소방서장, 양승진 전 나주시 공무원 등 4명이다.

이들 출마 예정자 대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선 결과에 따라 최종 거처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군 선거구는 전동평 군수의 3선 수선에 전·현직 공무원 5명의 도전 양상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출마 예정자는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과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경곤 전 신안부군수, 최영철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박소영 전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등 5명이다.

광주 서구청장은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광산구청장과 동구청장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또 화순군수는 조재운 전 나주시장과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장이, 담양군수는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영광군수는 한동희 전남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장성군수와 완도군수는 박노원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실

행정관과 신영균 전 완도군 경제산업국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출마 예정자로 점쳐지는 이유는 수십 년 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가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치·인적 네트워크로 남다른 후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인 민주당에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출을 위해선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광주와 전남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차출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들을 지역 정치권으로 발을 들여놓게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오랜 기간 행정에 몸담았던 공직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역 정치권에선 이를 최대 강점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현직 공무원들의 출마 움직임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종행기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5일 오전 동구 금남지구대를 방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시의회 지구대 방문...업무수행·시설 현황 파악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 업무 수행을 맡는 지역 지구대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위는 지난 15일 자치 경찰제 시행 초기 실태 파악 차원에서 금남지구대와 효덕지구대를 차례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자치 경찰 업무 수행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에 로사향을 청취했다. 이흥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구대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및 교통 등 생활 주변 시민들과 가장 밀착된 곳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시민이 체

감하는 적극적인 자치경찰행정과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자치경찰제는 지난 5월10일 시법 실시 후 7월1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가장 밀

접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사고나 재난 지원,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사고처리, 학교폭력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 1호 시책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대책이다. 이날 현재 자치 경찰 업무를 수행중인 지구대는 광산(13곳)·동부(5곳)·서부(7곳)·남부(6곳)·북부(9곳) 등 모두 40 곳이다. /이종행기자

## 전남도 '한우능력 평가' 3년 연속 대통령상

### 무안 박성순 농가 영예

전남도가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배출했다. 전남도는 17일 "최근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4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무안 박성순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회 사상 최초 3년 연속 최고상 수상 농가를 배출해 전남산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한우 생산지 위상을 굳히고 있다.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1993년부터 개최해 올해 24회 째를 맞았다. 올해 평가대회는 전남 26개 농가를 포함해 전국 240개 농가가 참여했다. 수상자 선정에 위해 체외 및 외모심사, 도축, 최종평가 등이 치러졌다.

평가 결과, 무안에서 한우 234마리를 사육하는 박성순 농가의 출품 한우가 품질을 높게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선보인 한우는 출품 당시 체중 897kg, 도축 체중은 542kg으로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7천만원에 낙찰됐다. 1kg 당 2만3천원 수준인 일반 한우 고기의 5.7배가 넘는 13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전남에선 무안 순현균 농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곡성 임복래 농가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 으뜸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전남 한우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남 한우산업이 전국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온택트 '2021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 연다

### 오늘부터 사흘간...도시민에 살기 좋은 어촌마을 소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가 수협 전남지역 본부와 함께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제4회 전남 귀어스몰엑스포'를 개최한다. 엑스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 인원 집합이 어려워 도시민이 전남의 다양한 어촌을 영상으로

생생히 느껴볼 수 있도록 온택트 행사로 준비했다. 어촌계장, 우수 귀어인으로 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행사는 귀어스몰엑스포 누리집(http://jnsmalexpo.kr)에서 펼쳐진다. 누리집에서는 여수, 순천, 보성, 영광, 해남, 장흥, 강진, 고흥, 함평, 진도 등 10개 시·

군 29개 어촌계 현황을 비롯해 주민의 귀어 유치 의지, 특산물·빈집 소개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군 별 귀어·귀촌 지원 정책 등도 홍보한다. 우수 귀어인, 귀어귀촌 전문가, 어촌계장 등과 상담한 후 설문지를 작성한 엑스포 참가자에게 모바일 음료권, 도시민 직거래망 '바이씨(https://www.buysea.co.kr)'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센터는 엑스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남 어촌에서 3박4일 지낼 수 있는 '제2차 전남어촌탐구생활', 한 달간 전남 어촌에서 머물며 현장체험을 해보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등 프로그램 참여자도 모집한다. 앞서 센터는 이번 엑스포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남 어촌마을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성공 귀어인들의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도시 귀어촌 희망 도시민 1천200여명에게 초청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펼쳤다. /김재정기자

## 광주선관위, 장애인유권자 모의 투표체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동구·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선거연수 및 모의 투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월9일)와 전국 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투표 취약계층의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이번 연수는 장애인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으로 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투표 방법 등 선거 전반에 대한 교육 등을 주로 다뤘다. 또 장애인 유권자가 실제 투표현장을 찾았을 때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투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더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